



『 11-05호 주간 심층이슈 』

2010년 중국 영화 총결산 및 2011년 전망

□ 2010년 중국 영화 현황

- 2011년 1월 7일, 중국 광전총국 영화국 소식에 의하면 2010년 중국 도시영화관라인 총 흥행수입은 101.7167억 위안으로 2009년보다 64%증가함. 국산영화 흥행수입은 57.3352억 위안, 수입영화 흥행수익은 44.3815억 위안. (별첨: 표-1)
- 2010년 중국 국산영화 생산량은 526부로 2009년 456부보다 15%증가함. 59부의 국산영화가 1천만위안 이상의 흥행수익을 거두었고, 대부분 중.저가의 영화임. 극장용 애니메이션 16부, 다큐멘터리영화 16부, 과학교육영화 54부, 특종영화 9부, 영화 채널에서 출품한 디지털 영화 100부 등이 포함됨.
- 2010년 중국 내 영화TV채널에서 거둔 영화 방송수입은 20.32억 위안으로 2009년 16.89억 위안 대비 20%증가함. 2010년 중국 영화의 종합 효과와 수익은 157.21억 위안으로 2009년 106.65억 위안 대비 47.4% 증가함. 2010년 중국 농촌디지털영화라인은 240개, 디지털영화방영설비 42,000세트, 방영된 영화

횃 수 800만 회를 기록함.

<표-1> 2001~2010년 중국 영화생산량 상황

년도	생산량 상황(부)	흥행수입(억 위안)
2001	88	8.7
2002	100	9
2003	140	9.9
2004	212	15
2005	260	20.46
2006	330	26.2
2007	402	33.27
2008	406	43.41
2009	456	62.06
2010	526	101.72

※자료출처: 2010년 중국라디오영화TV발전보고

- 중국 영화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외국 자본이 영화관 건설에 대거 투입됨. 영화관 건설에 투자하는 것이 영화제작에 투자하는 것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함. 동시에 만달(萬達), 대지(大地)등 영화관 라인과 화의형제(华谊兄弟)도 중국 내에서 자체 영화관을 건설함.
- 중국 국산영화 생산량의 증가와 더불어 영화 상영 단말의 경쟁구도가 형성됨. 2009년 대비 2010년 신설된 극장 313개, 신설된 스크린 1533개로 매일 평균 4.2개의 스크린이 신설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중국 도시 영화관 스크린은 6200개 이상으로 특히 중서부지역과 중소도시에 신설된 극장이 2010년에 신설된 극장의 40% 이상을 차지함 (별첨: 표-2)

<표-2> 2005~2010(6월까지) 중국 극장/스크린 상황

년도	극장 수(개)	스크린 수(개)
2005	1243	2668
2006	1325	3034
2007	1427	3527
2008	1545	4097
2009	1687	4723
2010	2000(잠정)	6200(능가)

※자료출처: 2010년 중국영화종합마케팅핵심보고

- 2010년 중국에서 방영된 200부의 영화 가운데 26부의 영화가 1억 위안의 흥행수익을 기록했고, 총 흥행수입의 65%를 차지함. 그 중 당산대지진(唐山大地震), 양자탄비(让子弹飞), 적인걸지통천제국(狄仁杰之通天帝国) 등 소수의大作만이 이윤을 남겨 이윤을 남긴 영화는 약10%에 불과함.
- 2010년 중국 내에서 제일 인기를 얻은 영화는 Avatar(阿凡达)로 중국에서 13.5억 위안의 흥행수입을 기록하면서 2010년 중국 영화 흥행수입의 1/10를 차지함.
- Avatar(阿凡达)와 Inception(盗梦空间) 및 국산영화 당산대지진(唐山大地震)의 흥행수입의 총합은 25억 위안으로 2010년 영화의 총 흥행수입의 1/4을 차지함. (별첨: 표-3, 표-4)

<표-3> 2010년 중국 국산영화 흥행수입 10위 순위표

순위	영화제목	흥행수입(단위: 만 위안)
1	당산대지진(唐山大地震)	67,332
2	양자탄비(让子弹飞)	47,981(2011년 1월 10일까지 60,365)
3	비성물요(非诚勿扰2)	33,451(2011년 1월 10일까지 44,137)
4	적인걸지통천제국(狄仁杰之通天帝国)	29,228
5	엽문2(叶问2宗师传奇)	23,404
6	조씨고아(赵氏孤儿)	19,310
7	대병소졸(大兵小将)	16,218
8	대소강호(大笑江湖)	15,393
9	산사수지연(山楂树之恋)	14,662
10	금의위(锦衣卫)	14,470

※(2011년 1월 20일) 자료출처: 중국영화보

<표-4> 2010년 중국 내 흥행수입 10위 해외영화 순위표

순위	영화제목	흥행 수입(단위: 만 위안)
1	Avatar(阿凡达)	137,870
2	Inception(盗梦空间)	44,207
3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爱丽丝梦游仙境2)	22,640
4	The Expendables(敢死队)	21,876
5	Harry Potter 7(哈利·波特与死亡圣器'上')	20,581
6	Iron Man 2(钢铁侠2)	17,637
7	Clash of the Titans(诸神之战)	17,518
8	Prince of Persia(波斯王子)	15,822
9	Resident Evil 4(生化危机4)	13,795
10	Toy Story 3(玩具总动员3)	11,920

※(2011년 1월 20일) 자료출처: 중국영화보

<표-5> 2010년 흥행수입 10위권 내의 영화관 라인(院线)

차레	영화관 원선 이름	흥행수입 (단위: 만 위안)
1	완다원선(万达电影院线股份有限公司)	140,265
2	중영싱메이원선(中影星美电影院线有限公司)	121,327
3	상하이렌화원선(上海联和电影院线有限责任公司)	107,128
4	심천시중영남방원선 (深圳市中影南方电影新干线有限责任公司)	95,071
5	베이징신영원선(北京新影联影业有限责任公司)	79,873
6	광저우쥘이쭈장원선(广州金逸珠江电影院线有限公司)	68,883
7	쩌장스다이원선(浙江时代电影大世界有限公司)	42,043
8	광둥따따원선(广东大地电影院线有限公司)	37,552
9	쓰촨타이핑원선(四川太平洋电影院线有限公司)	35,982
10	료닝빠이팡원선(辽宁北方电影院线有限责任公司)	32,041

※(2011년 1월 20일) 자료출처: 중국 영화보

<표-6> 2010년 흥행수입 10위권 내의 극장

차레	극장(시네마)	흥행수입 (단위: 만 위안)
1	베이징UME화싱귀지(北京UME华星国际影城)	9,824
2	충칭귀지(重庆国际影城) (강북)	7,734
3	썬썬짜허(深圳嘉禾影城)	7,585
4	써두화룽(首都华融电影院)	7,480
5	상하이허핑(上海和平影都)	7,071
6	푸쥘진이(福州金逸影城)	6,193
7	상하이용화(上海永华电影城)	6,079
8	우한완다(武汉万达影城有限公司)	6,075
9	베이징쓰징싼(北京石景山万达国际影城)	5,990
10	탠진완다(天津万达影城有限公司)	5,979

※(2011년 1월 20일) 자료출처: 중국 영화보

<표-7> 2010년 흥행수입 10위권 내의 지역

차레	성시	흥행수입(단위: 만 위안)
1	광둥(广东)	162,434
2	베이징(北京)	119,676
3	상하이(上海)	97,512
4	강소(江苏)	75,635
5	절강(浙江)	73,802
6	사천(四川)	62,224
7	호북(湖北)	44,666
8	요녕(辽宁)	37,414
9	충칭(重庆)	30,399
10	산둥(山东)	29,853

※(2011년 1월 20일) 자료출처: 중국영화보

○ 중국 영화의 해외매출액은 35.17억 위안으로 2009년 27.7억 위안에 비해 26.9% 증가함.

○ 2010년 63부의 중국 영화가 전 세계 25개 영화제에서 89개의 상을 획득함. 47부의 국산영화가 61개 나라와 지역에 판매됨.

□ 2011년 중국 영화 전망

○ 2011년 1월, 중국 영화가협회산업연구센터에서 반포한 “12.5 기간 중국영화산업 5개년 발전 연구 보고”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앞으로 5년 간 전국 박스오피스는 300억 위안을 돌파할 것이며, 12.5 후반기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화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

○ 2011년 1월 14일, 전국방송영상사업회의에서 제기한 2011년 사업목표 중에서 영화산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만 요약하면 다

음과 같음.

- “앞으로 5년 간 방송영상산업은 급속한 전환 및 발전이 공존하는 전략적 시기가 될 것이다. 심층적인 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을 동력으로 방송산업의 빠른 발전을 추진시킬 것이다. 주요 목표는 첫째, 현실적 제재와 중대한 혁명, 역사적 제재와 공업, 농촌, 아동, 소수민족을 제재로 한 작품의 창작을 중점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개혁개방 30년의 위대한 성과를 반영한 작품의 창작을 지원할 것이다. 둘째, 일부 영상제작기업과 그룹들을 고무하여 공유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공동적으로 발전하는 산업적 구도를 형성할 것이다. 셋째, 중국산 영화의 방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황금시간을 이용하여 국산드라마와 영화를 방영하는 규정을 엄격히 집행할 것이다. 동시에 수준 높은 작품 제작을 장려하고 수입영상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 또한 이번 회의에서 방송과 인터넷, 통신을 통합한 ‘3망융합’의 실시를 중점 사업목표로 내세움. ‘3망융합’이 이루어지면 네트워크의 공동 구축과 이용이 가능해져 비용이 절감되고, 중복투자를 방지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IPTV를 운영하는 통신사에 대해서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시사 프로그램의 중계방송(제작은 금지), 휴대전화 방송 서비스 등이 허용될 예정.

- 2011년 금융기구는 영상산업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적 지지도를 강화할 것이며, 조건에 부합되는 국유와 국유지주영화기업의 재편상장을 지지할 것임. 2011년은 더욱 많은 영화기업들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 대표적으로 중영그룹 (中影集团), 상영그룹(上影

集团), 광선영업(光线影业), 만달원선(万达院线) 등이 있음.

- 2011년 3년 19일은 영화산업 발전의 새로운 기점으로 중국은 WTO협정에 의거하여 미국의 오락상품들에 대한 시장 개방을 확대하게 됨. 중국은 미국과 기타 외국기업의 영화, 음악, 게임과 도서 등이 중국으로 진입하는 것을 허가할 것이며, 중미합자기업이 인터넷상에서 음악을 판매, 제공할 수 있음.
- 《해협양안경제합작구도협약의海峡两岸经济合作框架协议》(ECFA)가 이미 2010년 9월 12일에 정식으로 발효함. 이 협정에 의거하여 광전중국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대만 영화에 대한 개방적 조치를 취함.
- 사실 중국영화가 최근 몇 년간 거둔 좋은 성적은 일찍이 홍콩과 맺은 CEPA협약의 덕을 볼 수 없음. 많은 홍콩감독이 내륙으로 진출, 흥행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영화제작에 참여함.
- 2011년 국산영화의 생산량은 600부로 전망. 2011년 국산영화는 주제와 그 내용면에서는 기존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국 공산당 창건 90주년, 신해혁명 100주년 등을 빌어 좀 더 굵직하고 가시적인 시도가 돋보이는 영화들이 나올 것으로 보임.
- 대표작품으로 7월에 개봉되는 “건당위업”(《建党伟业》), 11월에 개봉되는 “신해혁명”(《辛亥革命》)등이 있음. 특히 “건당위업”은 역사이야기와 톱스타의 결합으로 많은 젊은 관객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그 외 풍소강(冯小刚)감독이 말한 “마음을 움직이는 친정(亲情)”도 인기몰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비성물요2”《非诚勿扰2》의 매표기록이 이를 뒷

받침함. “천녀유혼” 《倩女幽魂》, “화벽” 《画壁》 등 중국특색이 있는 모환 이야기도 역시 기대됨.

○ 2011년은 중국 국산 3D영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 “기술광인” 이라고 불리우는 서극(徐克)의 3D무협극 “용문비갑” (龙门飞甲)은 3500만 달러를 투자하였는데 이연걸(李连杰), 저우션(周迅)과 같은 톱스타들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아바타의 3D기술팀이 특수효과 제작에 참여함. 그 외에도 주윤발(周润发), 곽부성(郭富城) 등이 주연하는 “대노천궁” (大闹天宫)과 정보서(郑宝瑞)감독의 “손오공” (孙悟空)도 기대됨.

○ 2011년 영화의 기술면에서는 IMAX와 3D영화가 추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 2011년 첫 주의 박스오피스를 분석해보면 3D영화의 흥행수익이 74.7%, IMAX가 13%으로서 총 87.7%를 차지함. 작년 “아바타” (《阿凡达》)가 3D 영화로 55%를 차지하고, IMAX의 흥행수익이 4.64% 차지한데 비하면 국내영화시장이 3D와 IMAX의 방영에 대한 급속한 규모의 확장을 말해주며 영화기술의 발달이 시장에 커다란 동력이 되고 있음을 말해줌.

○ 2011년 국내에서 상영될 IMAX 영화는 수입영화 “Pirates of the Caribbean(加勒比海盜4)”, “Cars(汽车总动员2)”, “쿵푸팬더2(功夫熊猫2)”, “트랜스포머3(变形金刚3)” 등 15부 이상으로 될 것으로 추정.

○ 즉 2011년 수입영화의 특징은 “3D + 후속편” 으로 전망할 수 있음. 선진기술과 감동적인 스토리로 제작된 영화가 2011년에도 역시 관객몰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함.